

“표절이다, 아니다 말하기 보다는...”

문대성 의원 인터뷰

스포츠인 신분이라면 문제 안됐을 논문 타이밍 놓쳐 국민들께 못 밝힌 점 죄송 IOC위원 사퇴는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김연아 등 후배들에게 피해는 없을 것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전문매체 아라 운더링스는 17일(한국시간) 문대성(38·새누리당 의원) IOC 선수위원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전했다. 문 의원은 이 인터뷰에서 “국민대가 내린 논문 표절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대의 조사는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이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2월말 문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이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문 의원에 박사학위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문 의원은 3월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을 통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박사학위 취소처분 무효 확인’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 의원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묵묵부답하던 문 의원과 17일 전화연락이 닿았다.

국민대는 3월말 IOC에 논문표절 최종결론을 회신했고, 외신은 최근 “IOC 윤리위원회가 문 의원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IOC 선수위원회에 선출된 문 의원의 입기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다. 문 의원의 소송 제기는 IOC의 징계를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 용’이란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문 의원의 입장을 들었다.

-국민대의 논문 표절 조사가 정치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야당의 압력이 있었던 애김인가?
“야당에 대한 것은 아니다. 내가 정치인이다 보니, 스포츠인이거나 IOC 멤버이기만 했다면 문제가 안됐을 것들이 정치적인 사



새누리당 문대성(38·IOC 선수위원) 의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박사학위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제기, IOC 선수위원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으로 결부된 것 같다는 얘기였다. 다른 학교들은 (표절 관련 조사 결과) 6개월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대가) 오랜이런 시간을 끈 것도 그렇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대해 국민대는 “본조사 시작 시점은 2012년 5월 18일, 종료 시점은 같은 해 11월 14일이었다. 정확히 6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문 의원이 재심을 요청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정확하게 ‘표절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 보다는... 국민들께도 죄송한 부분이 많다. 타이밍을 놓쳐서 말씀을 못 드린 것도 있다. 소송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국민대에서도 IOC에 (표절 결론을) 회신할 때, ‘우리의 판단기준과 법원의 판단기준은 다를 수 있다’고 보냈다.”

(이에 대해 국민대는 “‘우리와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결론은 표절이지만 문 의원이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간단한 영어문장

이라 해석이 다를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표절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 논란을 키운 측면도 있지 않나?
“맞다. 잣대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 맞출 것이냐에 따라... (표절 조사과정에서) 논문을 쓸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런 부분은 다 배제가 됐다. 불합리한 부분을 명확히 알고 싶어 소송을 한 것이다. 발표 결과에 대해 얘길 하면 깨끗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서... 말 못한 부분이 많다.”

-오랫까지 똑같았다는데?
“이런저런 배경에 대해선 다 내용이 비슷하다. 한번씩 보고 못 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착오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신경을 못 쓴 것은 내 불찰이다.”

-소송 제기가 시간 끌기 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그건 절대 아니다. 난 올림픽 금메달을 따서 (선수위원으로서) IOC 멤버가 됐다. IOC도 올림픽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내게 원하는 것이다. 논문과의 문제는 별개로 본다. 팔 슈미트도 (논문 표절 문제에도 불구하고) IOC 관계자를 잘 하고 있다.” (IOC 위원인 팔 슈미트 전 헝가리 대통령은

2013년 5월 논문표절 때문에 IOC 윤리위원회로부터 엄중경고 처분을 받았다)
-최근 IOC 윤리위원회가 문 의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아니다. 좀 기다려봐야 한다.”

-그 보도가 잘못된 것인가?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기보다는, 서류를 접수하고 있는 과정으로 본다. 큰 영향은 아니다.”

-IOC로부터 조사에 대한 연락은 안 왔나?
“국민대에서 (표절 결론 회신을) 받은 부분은 연락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시 연락이 올 것이다.”

-IOC 위원에 재도전할 계획이 없다는 마음은 여전히 유효한가?
“그것은 이미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말한 부분이다. 나를 통해 잠미란, 이용대 등이 새로운 꿈을 가졌다.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맞다. 더 이상 IOC 위원에 대한 욕심은 없다.”

-표절 논란이 후배들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있는데?
“그 점은 분명히 밝히고 싶다. 김연아 등 후배들에게 절대 피해가 안 간다고 약속할 수 있다. IOC나 국제체육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선수와 이쪽(IOC) 사회는 별개로 간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할 것이다. 나 역시 도박을 입고 부지런히 선거운동을 해서 선수위원에 선출됐다.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한다면, IOC가 절대로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는다.”

-IOC 위원을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게 국익에 나을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다. 현재 국제스포츠계는 대단히 빠르게 돌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발을 맞춰서 못가고 있다. 양태영, 신아람, 김연아, ... 이렇게 피해를 입는 상황을 보면 대단히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 강력히 항의를 한 적도 있었다. 만약 김윤용 전 IOC 부위원장이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나.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IOC 위원으로서 향후 계획은?
“당분간은 아시안게임에 집중할 것이다. 8월 중국 난징에서 열리는 유스올림픽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신한은 임달식 감독 경질 여자프로농구 명장 퇴장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첫 6연속 통합우승 남극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이 임달식(50·사진) 감독을 전격 경질했다.

신한은행은 17일 “임 감독이 지난 7년 동안 감독으로 재직하며 프로스포츠 최초의 통합 6연패를 달성하는 등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이루었고,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잠시도 쉬지 못해 마다의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며 구단과 협의 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약기간 1년을 남겨뒀던 임 감독은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감독은 신한은행을 여자프로농구 최고의 팀으로 변모시키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2007년 8월 지휘봉을 잡은 임 감독은 2007년 겨울리그부터 2011~2012시즌까지 팀을 6시즌 연속 통합우승으로 이끌었다. 6연속 통합우승은 프로스포츠 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2011~2012시즌을 마친 직후 신한은행과 3년 재계약을 한 임 감독은 세대교체로 2012~2013시즌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팀을 정비해 2013~2014시즌 정규리그에서 2위를 차지했고, 플레이오프에서 KB스타즈를 꺾고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 준우승을 차지하며 다시 정상권으로 도약했다.

한편 후임 감독으로는 남자프로농구 LG 사령탑을 지낸 강윤준 현 KBSN스포츠 해설위원 등이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kimdohoney

‘대한민국체육상’ 올해부터 중복 수상도 가능

국내 체육계 최고 권위의 상인 ‘대한민국체육상’의 수상 기준이 완화돼 올해부터 중복 수상이 가능해졌다. 새누리당 이예리사 의원은 17일 “대한민국체육상을 한 번 수상한 사람도 다른 분야에서 심사대상이 될 경우 중복수상이 가능하도록 바뀌게 됐다”고 개정 사실을 밝혔다. 대한민국체육상은 1963년부터 시행돼 지난해 제50회를 맞았다.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 국위선양에 기여한 선수와 지도자,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물을 발굴해 7개 분야로 나눠 정부가 시상하는 체육 부문 최고의 상이다.

듀란트 42득점 올린 오클라호마시티 서부 2위 확정

미국프로농구(NBA) 오클라호마시티가 17일(한국시간) 체서피크 에너지 아레나에서 열린 2013~2014시즌 정규리그 최종전 디트로이트와의 홈경기에서 케빈 듀란트의 42점-6어시스트 활약에 힘입어 112-111로 승리했다. 오클라호마시티는 59승23패, 서부콘퍼런스 2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랐다. NBA 플레이오프는 20일부터 시작된다.

남자프로농구 전자랜드 21~22일 선수단 워크숍

남자프로농구 전자랜드는 2014~2015시즌 준비를 위한 선수단 워크숍을 21~22일 실시한다. 전자랜드 선수단은 21일 오전 6시30분 팔당역 부근에 도착한 뒤 숙소인 강촌 엘리시안 콘도까지 약 65km를 자전거로 이동하는 체력 훈련을 한다. 숙소에선 선수 개인의 자기평가 발표, 정성진 트레이너의 개인별 체력훈련프로그램 설명, 유도훈 감독의 다음 시즌 팀 운영방안 발표 등이 이어진다.

LPGA 롯데챔피언십 박세리·김효주 등 1R 공동선두

2014시즌 LPGA투어 첫 승 사냥에 나선 한국여자프로농구 선수들이 롯데챔피언십 첫날부터 상위권을 점령했다. 박세리와 김효주, 유소연은 17일 미국 하와이주 오후우섬 코올리나 골프장(파72)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나란히 4언더파 68타를 쳐 공동선두로 나섰다. 2010년 벨마이크로 클래식 이후 우승 행진이 멈춘 박세리가 우승할 경우 통산 26승째를 달성하게 된다. 초청선수로 출전한 김효주는 우승 시 내년 미 LPGA 투어 출전권을 받을 수 있다. 박인비는 2언더파 70타로 장하나, 미셸 위 등과 함께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렸다.

LPGA 하나·외환 챔피언십 올해부터 4라운드 방식

국내 유일의 LPGA 대회로 치러지는 하나·외환챔피언십이 올해부터 총상금 200만 달러, 4라운드 72홀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상금 200만 달러는 LPGA 투어의 33개 대회 중 6번째로 상금이 많다. 지난해에는 총상금 190만 달러, 3라운드 54홀 경기로 치러졌다.

편집 | 박재은 기자 parkjy@donga.com 트위터@parkjyoon

필드 위의 여신들 패션 경쟁 열기도 ‘이글이글’

KLPGA 롯데마트 여자오픈 패션쇼 방불 양수진 다양한 모자와 과감한 팬츠 연출 안신에는 짧은 바지·치마 번갈아 멋내기 팬들에 어필하고 자신감 상승 효과까지

여자골퍼들의 무한 패션 경쟁이 필드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몸매가 휘호 드러나는 슬림한 옷차림에 아슬아슬한 미니스커트, 빨강, 파랑, 노랑 등 원색의 화려한 컬러까지. 필드에서 펼쳐지는 여자골퍼들의 멋내기 패션쇼를 방불케 한다.

9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개막전으로 열린 롯데마트 여자오픈 1라운드에서는 또 다른 볼거리가 펼쳐졌다. 여자골퍼들의 과감한 패션이 팬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올해 의류회사 파리게이츠와 메인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양수진(23)의 패션은 화려해지고 과감해졌다. 양수진은 나흘 내내 다양한 모자와 짧은 팬츠로 멋을 냈다. 1라운드에서는 강렬한 레드 컬러의 티셔츠와 치마 그리고 힙합 스타일의 모자로 멋을 냈고, 2라운드에서는 청이 등근 패도라 모자를 쓰고 나와 갤러리들의 눈길을 끌었다.

양수진은 화려한 패션 덕분에 이 대회의 베스트드레서로 뽑히는 영광을 안았다. 또 갤러리를 대상으로 진행된 최고의 패션스타 투표에서도 당당히 1위에 올랐다. KLPGA를 대표하는 패셔니스타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패션하면 빼놓을 수 없는 스타가 안신에(24)다. 첫날부터 짧은 팬츠로 한껏 멋을 낸

그는 바지와 치마를 번갈아 입으며 돋보이는 패션 감각을 뽐냈다.

김하늘(26·비씨카드)과 윤채영(27·한화), 김지희(20·대방건설) 등도 개성이 돋보였다.

김하늘은 큰 캐리커가 그려진 티셔츠와 치마에 니삭스로 스타일을 완성했고, 윤채영은 긴 다리를 잘 드러낸 슬림한 팬츠와 치마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김지희는 알록달록한 컬러의 귀여운 의상에 호피 무늬 골프화로 마무리하는 남다른 패션 감각을 선보였다.

여자프로골퍼들의 필드패션이 점점 더 화려하고 파격적으로 변신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필드에서 자신만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팬들에게 어필하고, 자신감 상승의 효과로 이어져 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수진은 “예쁘고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경기에 나서면 기분이 좋아져 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는 경기하는 내내 자신감이 떨어져 소극적인 플레이를 펼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패션이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건 심리적인 안정감이다. 즉 멘탈에 영향을 준다. 크리스티안 마케팅팀 이혜진 부장은 “여자골퍼들에게 패션은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단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게 하는 코디는 자신감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런 점에서 패션은 경기력을 상승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드에서 펼쳐지는 패션 경쟁이 우승 경쟁만큼이나 뜨겁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na1872



여자골퍼들이 펼치는 패션 경쟁이 필드의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청이 등근 패도라 모자를 멋을 낸 양수진(왼쪽)과 오렌지색 스커트와 모자로 스타일을 연출한 윤채영. 사진제공 | KLPGA

